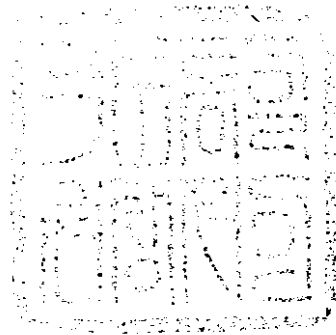


이 報告書는 國土統一院 74年度 上半期  
學術用役に 關한 最終報告書로 提出합니다

1974.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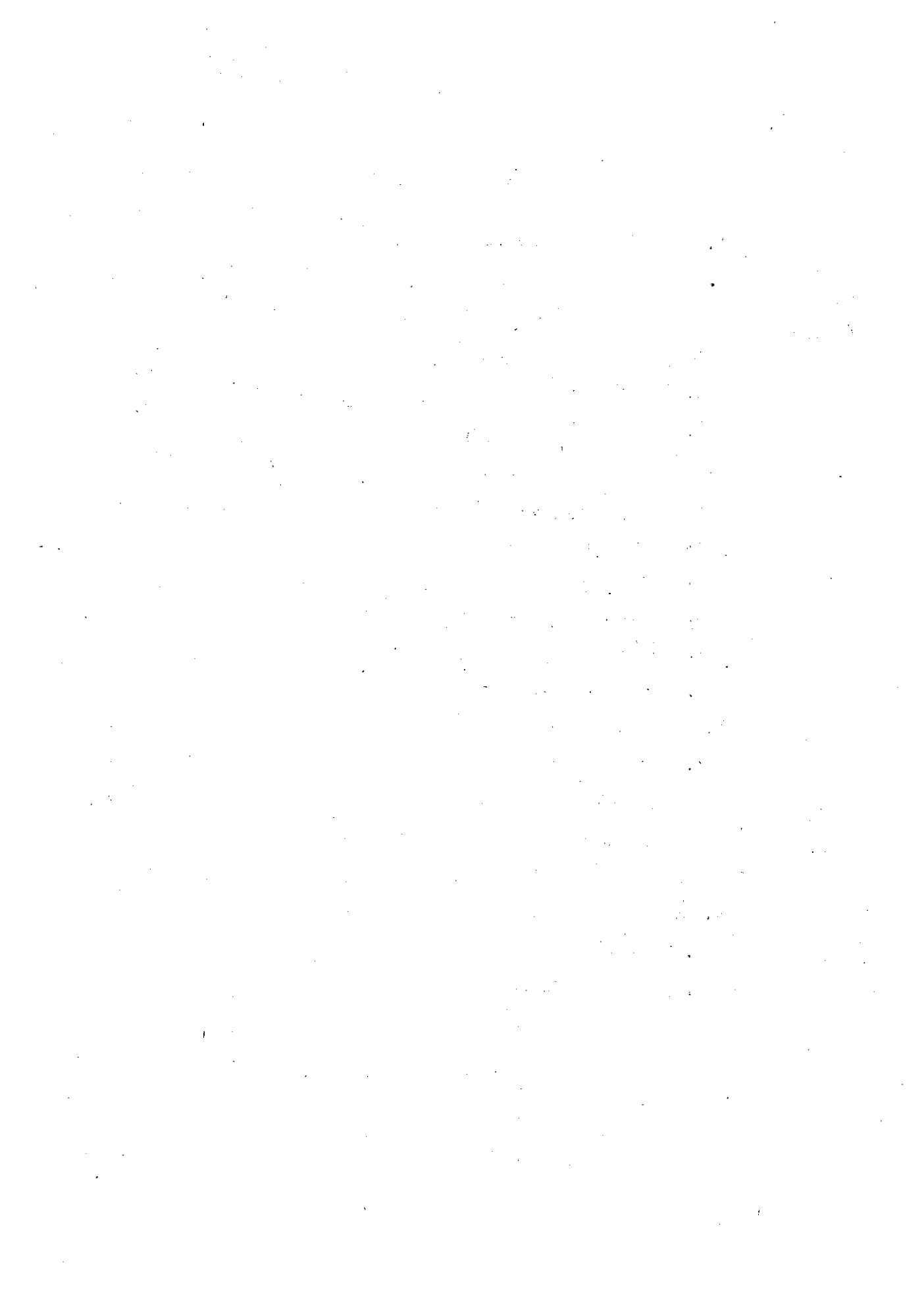


研究責任者： 李 恒 九



## 목 차

1. 研究目的	3
2. 머리말	5
3. 戰略의 時期別 特性	6
가. 才1段階 ( 5. 16 ~ 65 )	6
나. 才2段階 ( 66 ~ 67 )	7
다. 才3段階 ( 72 ~ 現在 )	9
4. 北傀의 對南基本戰略	11
가. 基本目標 및 革命性格	11
나. 革命戰術	12
다. 心理戰 主題 分析	13
라. 對話戰略	18
마. 北傀의 誤算	20
바. 北傀의 對南戰略 現況	22
5. 北傀의 最近 動向	25
가. 軍事的 動向	25
나. 對南動向	26
다. 北傀의 向背	29
6. 우리의 對備策	31
7. 政策建議	33
가. 心理戰의 運用과 機構	33
나. 心理戰의 具體的事業	39



## 1. 研究目的

7. 4 共同声明 이후 南北對話가 本格的으로 이루어 진듯 하더니

8. 28 金英柱宣言으로 南北對話가 中斷狀態에 突入하고, 南北間에는 다시금 緊張狀態로 還元하기에 이르렀다.

물론 對話自体가 平和를 保障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韓半島에서 武力 代身の 平和的인 方法으로 統一問題로 接近해 보자는데 그 根本的인 精神이 있다면 南北對話는 平和統一 接近의 才1步라 하겠으며 이런 土台위에서만이 南北間의 漸進的인 發展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8. 28 宣言 이후 北僞의 武力挑發이 험악하게 나타나기 始作했고 더욱이 74年度에 들어오서는 緊張을 高潮시키는 計劃的인 挑發이 陽動되면서 이런 挑發을 南北對話와 結付시켜 韓國側에 그 責任이 있는 樣 對內外的인 宣傳을 強化하고 있는 것은 自家擔當이 아닐 수 없다.

問題는 이런 挑發策動을 닷아오는 28次 UN總會까지 끌고갈 것이 라는 點에 있다고 보면 우리는 對內外的 心理戰에 있어서 特別한 考慮가 없어서는 안될 것이다. 왜냐하면 昨年 UN總會에서 韓國問題는 南北韓의 自決에 맡기는 形態로 決議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決議를 尊重한다던 南北對話의 誠突性이 立証되는 條件下에서 對UN戰略이 主효하기 때문이다.

이런 狀況的 條件에서 北僞의 挑發이 國內外的으로 韓國側에 轉嫁

된다면 南北對話에 대한 不誠實性도 아울러 轉嫁된다는 點에 있어서 特別히 注目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우선 守元號 被拉條件만 보더라도 그들은 간접선으로 造作하여 對南, 對外 攻勢를 취하였고 海警 警備艇을 偵探行爲를 敢行하였다고 造作하여 宣傳하고 있는 點은 北傀에 대한 應政措置로서만 滿足할 만한 處理가 못된다.

要는 이런 計劃的인 모락이 南北對話에 있어서 特別히 對UN戰略을 겨냥하여 「플러스」(+ )要因과 「마이너스」(- )要因을 찾아내고, 北傀의 宣傳에 대하여 源泉的으로 封鎖할 수 있는 心理戰 對策이 特別히 時急한 것이다.

여기서 本稿는 北韓의 戰略을 分析하면서 最近의 戰略을 評價하고 이에 對処한 方案을 모색하고자 한다.

## 2. 머 리 말

5.16革命은 우리 政府의 對北路線을 國是的 次元에서 「反共」으로 闡明하였다.

이것은 바로 4.19革命이후의 國內政治的 混亂이 理念的인 面에서도 混亂을 빚게 되고 無分別한 統一論은 北傀의 對南戰略에 크게 도움이 되는 方向으로 進展되어 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革命政府의 이러한 強硬 反共政策과 그후 一貫되어온 反共路線은 北傀의 對南戰略에 試行措誤를 가져오게 하였고, 特別히 朴大統領의 8.15 平和統一構想宣言이후 對決의 論理에서 對話의 論理로 접어들자 北傀의 姑息的이며 非融通的인 暴力革命方法도 再考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 期間이야 말로 北傀는 對南戰略에 있어서 試鍊期라고 보지 않을 수 없었다. 대체로 그들의 戰略戰術이 內部要因的이었던 또는 外部要因的이었던 間에 몇차례에 걸쳐 戰略面에서나 戰術面에서 軌道修正을 加해왔다는 것은 事實이다.

이 時期는 대체로 5.16 革命이후부터 65年까지, 66年부터 71年까지, 그리고 72年부터 현재까지로 볼 수 있다. 다만 現在 段階에 있어서는 73年 8月 28日 金英柱宣言을 中心으로 特徵을 살펴 볼 수 있다.

### 3. 戰略의 時期別 特性

北傀가 對外的으로는 武力赤化를 표방하지는 않고 오직 平和統一 宣傳으로 偽裝하고 있지만 그들의 모든 決定事項은 赤化革命을 窮極的 目標로 하여 革命推進體制를 強化하여 온 것은 明白한 事實이다. 이점에 力點을 두고 그들의 戰略戰術上의 時期的 特徵을 살펴보자.

#### 가. 第一段階 (5.16 65)

5.16 革命이후 統一與件에 있어서 前의 政府와 달리 뚜렷한 目標로서 「先建設. 後統一」을 내세웠다. 國力培養이 統一의 捷徑임 을 다른 政府에 비해 獨特한 「슬로건」으로 내세웠고 이에 따라 對北觀에 있어서도 對決意識이 各部門에 걸쳐 보다 具體化되기 始作 했다. 그러나 北傀는 4.19 革命 以後 「決定的 時機」의 喪失을 自己批判하면서 所謂 71年까지 對南革命의 決定的 時機를 造成할 目標로 探索工作에 集中的으로 力量을 強化하였다. 여기에서 對南事業總局이 發足되었고 (1964) 對南戰略機構의 體制도 一元化하였다.

對南戰略의 基本方向으로서는 이미 61年 10月 第4次 黨大會決議 事項으로

첫째 軍事體制로서

- ① 現代戰에 對処한 軍事知識을 習得하고
- ② 金日成 中心의 抗日鬪爭과 6.25 戰爭에 對한 經驗을 研究하며
- ③ 各國의 革命成功에 對한 模倣과
- ④ 南韓 共產化革命 鬪爭에 總蹶起體制
- ⑤ 反美 救國鬪爭統一戰線形成을 行動的으로 展開한다.



둘째 統一의 時期를

① 日本과의 軍事協定 締結 以前에

② 現 共産黨 執權勢力이 老衰하기 以前에

③ 韓國의 政治的, 經濟的 基盤이 安定되기 以前으로 하였다.

이러한 61年의 決定事項이 다시 65年 10月 10日 勞動黨 創黨 20周年을 期하여 再確認되었고, 보다 具體化되었으며 이것은 66年에 들어와서 더욱 強化되기에 이르렀다.

이 時期에 있어서는 決定的 時機 探索工作에 있었으므로 對南工作에 있어서 보다 積極的일 수 없었다는 것으로 評價된다.

나. 第2 段階 (66 ~ 71)

北僞는 단순한 對南 探索工作에서 實効를 거둘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對南平和統一宣傳 方法이 無望함을 알게 되자 그들은 決定的 時機造成의 促進方法으로 武裝間諜戰術로 一大 轉換을 期하게 되었다. 이것은 對南 遊擊戰과 地下黨 指導部로 形成 革命力量을 配合, 強化하자는데 目標을 두고 對南革命動力을 組織的으로 育成하자는데 있었다.

66年 10月 勞動黨 代表者會議에서 그들은

① 對南革命에 있어서 力量의 正確한 測定과 情勢의 慎重한 評價

② 對南革命이 自然 發生할 時機를 期待하는 것은 不可能하므로 決定的 時機 造成을 위한 積極的인 鬪爭을 展開하는 것이 不可避하며

③ 冒險的인 鬪爭은 革命力量의 損失을 招來할 畧이다.

④ 政治·經濟 等 모든 分野에 있어서 鬪爭과 鬪爭方法으로서는 暴力·非暴力鬪爭, 合法, 非合法, 半合法鬪爭등의 配合으로 소위 總力戰을 展開할 것을 強調하였다.

68年 9.9節에서 金日成은 「모든 形態의 鬪爭을 吸收하여 스스로 決定的 鬪爭을 展開하여야 한다」, 「暴力없는 方法은 幻想」이라 하여 對南革命을 準備있게 맞이하기 위해서는 「政治, 經濟, 合法, 非合法, 小規模, 大規模, 單獨, 配合, 鬪爭」등 總動員과 「決定的 時機는 오직 暴力的 方法」뿐이라고 하였다.

69年 1月 人民軍 黨 4期 4次 全員會議에서는 소위 金日成의 對南工作 5大路線을 採択하기에 이르렀다. 즉,

- ① 軍事偵察 및 破壞攪亂事業 強化
- ② 山岳遊擊戰에 有利한 輕步兵機動隊 創設
- ③ 空中 浸透을 위한 低空飛行技術 培養
- ④ 遊擊戰과 正規軍의 配合
- ⑤ 支援要請의 即刻投入 準備등으로 採択하였고, 이러한 뒷받침이 될 수 있는 全人民軍에 對한 金日成의 再整備의 強化 指示는
  - ① 必要한 部隊 創設 準備機構 設置
  - ② 偵察事業 積極推進, 敵情報 蒐集努力
  - ③ 小部隊 및 特殊部隊 訓練強化
  - ④ 偵察旅團·創設事業 積極推進과 裝備의 輕量化 推進
  - ⑤ 全人民軍 및 保衛省 幹部는 遊擊理論 習得할 것 등으로 되

어 있다.

70年 5次 党大会에서는 南韓의 革命을 人民民主主義 革命으로 規定하여 地下党 組織을 強化할 때 대하여 決定하였다. 그 方法 으로서는

① 在南地下党으로서의 統革党 組織을 強化하여 在南指導部를 育成하고

② 群衆組織에 對한 革命力量을 蓄積하고

③ 同調勢力 및 潛在力量을 擴大한다.

이같이 北傀는 對南戰略에 있어서 段階的으로 擴大 強化하여 그 들의 赤化目標을 現實化시키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對南戰略과 具體的 實証의 1.21 事態와 三陟, 蔚珍 事態로 나타났다.

다. 第3 段階 (72 ~ 現在)

이 時期에 있어서는 南北間의 關係는 對決의 論理에서 對話의 論理 위에 展開되고 있음을 特徵적으로 評價할 수 있다.

우리는 70年 8.15 宣言이 있었고 이에 對한 具體的 實踐方法 으로서 71年 8.12 大韓赤十字社의 北傀에 對한 南北赤十字會談 提議 그리고 72年 7.4 南北共同聲明으로 南北會談의 本格化, 그 후 73年 8.28 金英柱의 一方的인 宣言으로 南北會談의 좌절과 北傀의 72年 11.11 措置에 對한 一方的 違反으로 다시금 北傀의 挑戰으로 對決樣相은 原點으로 되돌아온듯 하더니 이제 더욱 심각한 程度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 期間의 特徵은 平和統一을 포방하면서 內的으로는 4大軍事路線을 強力히 推進하여 軍事的 힘을 바탕으로 對話에 優勢한 位置를 確保하고자 한 데 있었다.

그렇다고 그들의 基本目標인 對南赤化라는 基本戰略에는 何等의 變化가 없었고 다만 戰術上的 變化가 多少 融通性있게 展開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具體的인 分析은 다음 項에서 다루기로 한다.

### 3. 北傀의 對南 基本戰略

#### 가. 基本目標 및 革命性格

北傀의 對南基本戰略은 國際共產主義 線路에 의한 共產化 革命으로 大韓民國의 赤化를 目標로 하고 있다.

北傀는 61年 9月 18日 勞動黨 第4次 黨大會에서 「朝鮮勞動黨 規約」前文을 修正採択하였는바 그 內容은 「朝鮮勞動黨의 當面 目的은 北半部에서 社會主義의 完全 勝利를 保障하며 全國的 範圍에서 反帝, 反封建, 民主主義 革命의 課業을 遂行하는데 있으며, 最終 目的은 共產主義社會를 建設하는데 있다」고 明示하고 있다.

換言하면 北傀는 對內的으로는 共產主義 革命基地를 鞏固히 하고 對南革命力量을 強化하여 決定的 時期에 平和的 또는 武力的 方法으로 共產化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不交戰略으로 첫째 南韓革命과 祖國統一을 革命의 全國的 勝利를 위한 革命課業으로 하고 있으며 둘째 暴力的 方法에 의한 南韓의 人民民主主義 革命이 最上의 方法이며 세째 오직 北傀의 旗幟下에 祖國이 統一되어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이것은 72年 7月 3日 7.4 共同聲明 하 루전 平壤放送을 통해서 主張되었고 또 73年 2.8節에 吳振宇의 報告에서도 確認되었다.

72年 7月 6日 平壤放送은 또 「南韓의 人民民主主義 革命方法으로는 첫째 勞動者, 農民을 結束하여 地下黨으로서 統革黨을 強化

하여 對南革命을 主力化 하고 둘째 青年, 知識人, 學生, 民族資本家, 小資產階級, 一部 愛國的 軍인들이 政治力량의 結束으로 統一戰線을 形成하여 革命動力化하고, 세째 各種 形態의 鬭爭 方法을 配合하여 反美反政府 大衆鬭爭을 展開할 것으로 分析된다.

이에 根拠한 戰略目標을 「美軍의 撤収」와 「南韓內의 現在矛盾을 擴大시키고, 潛在的 矛盾을 浮刻」시켜 南韓의 矛盾을 極大化시키고 最大限으로 活用하는데 두고 있다.

따라서 北傀는 南韓의 性格을 反帝國主義 革命, 反封建主義 革命, 人民民主主義 革命(共產化 革命)이라 規定하고 革命戰略으로 對內的으로는 民主基地化 路線을 對南에 對해서는 決定的 時機의 造成, 對外的으로는 國際的 優位의 確保에 두고 있다.

#### 나. 革命戰術

對南革命戰術로서는 共產主義 革命의 一般的 戰術 原則을 따르고 있다.

첫째로 地下黨 工作으로서 統革黨을 再建하여 地下組織을 構築하는 한편 同調勢力을 確保한다.

둘째로 心理戰 工作을 展開하여 南韓內의 政治, 經濟, 社會 모든 部門에 걸쳐 擾亂과 混亂을 造成하여 北傀가 企劃하는 方向으로 輿論을 誘導하여 反體制와 內部瓦解를 劃策한다.

세째 遊擊工作을 通하여 南韓 內部에 掘占을 確保하고 根拠地를 마련한다.

이러한 3 個形態의 戰術中에서도 地下黨工作과 心理戰 工作을 熾烈하게 展開하고 있으며 遊擊工作만은 70年代 들어와서 戰術上의 變遷을 가져왔다.

특히 우리는 이 地下黨 工作과 心理戰 工作에 있어서 留意하고 이에 대한 戰術的 代置가 重要한 課題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心理的 工作은 政治, 外交, 經濟, 文化 等 모든 分野에서 次元높게 展開되고 있으며 특히 南北對話도 心理戰的인 次元에서 展開하고 있음은 看過할 수 없다.

#### 다. 心理戰 主題 分析

70年代 특히 南北對話 이후의 對南心理戰의 目標에 대하여 分析해줄 必要가 있다. 이것은 對南戰略의 觀點에서 南北關係의 새로운 局面이 展開되고 있는 條件下에서 北傀側의 心理戰 目標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國民의 保護라는 立場에서 對抗目標의 設定이 必要하기 때문이다.

몇가지 되풀이되는 事項을 綜合的으로 分析해 보면

##### (1) 6.25 動亂體制의 瓦解

北傀는 6.25 動亂을 통하여 나타난 對內的, 對南韓 그리고 對外的 環境이 北傀側에 全的으로 不利해졌다는 것을 認識하고 이러한 動亂體制를 脫皮하기 위하여 腐心하였다.

6.25 南侵은 北傀가 南侵을 敢行한 結果 大韓民國의 反共體制의 結束이라는 結果를 가져오게 하였으며 北傀의 金日成集團은 이

6.25 動亂體制에서 形成된 우리의 反共體制를 直接·間接 이든 武力에 의해서나 其他 다른 方法으로도 破壞할 수 없다는 것도 根本的으로는 認識하기에 이른 것이다.

또한 國際적으로는 6.25 動亂을 통하여 侵略者로 規定됨으로서 事實上 北傀는 國際的 孤立化를 면할 수가 없었으며 이 國際的 孤立 脫皮를 위한 政策的 努力的 계속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北傀의 心理戰의 基本目標가 이러한 6.25 動亂體制로 形成된 南韓의 反共體制的 政治的 環境을 緩和시키고, 解弛시키며 終局的으로는 이러한 體制를 崩壞시키려는 것이 그 基本目標라고 할 수 있다.

國際關係에 있어서 새로운 環境의 造成이라는 것은 6.25 動亂體制로 인하여 UN軍 派遣國과 多數國家에 對한 敵對關係를 解消시키고 새로운 環境을 造成하는 것이며 이는 다시 말해서 6.25 動亂體制 以前의 狀態로 原狀復舊를 해보자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바로 北傀가 굳이 「北侵」을 계속들고 나온 것으로 證明된다.

## (2) 金日成「主体·唯一思想」

金日成의 날조된 主体思想과 唯一思想의 動機가 무엇이며 그 實體, 그리고 意圖하는 目的이 어디에 있는가가 重要하다.

金日成의 모든 演說이나 發表文은 政治 心理戰的 次元에서 表現되고 있으며 實際上 外交協商時 目的이나 이에 準하는 次元에서 行해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金日成이 韓半島 全體를 意識하고 내놓은 「主体」나 「唯一思想」도 實際로 이 次元을 벗어나지 못



한 心理戰的 次元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主体思想은 心理戰의 次元에서 볼 때 統一政策面에서 「共產主導」를 強調하는데 不適當한 것이다.

즉 金日成은 「民族의 内部問題인 우리 祖國의 統一問題가 外勢에 의해서가 아니라 朝鮮 사람들 自身の 손에 의해서 그리고 戰爭의 方法이 아니라 平和的 方法으로 解決되어야 한다」고 一貫하여 主張하고 있다. 이것은 勞動黨 規約 前文에 明示되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金日成의 「唯一主体思想」이 마치 平和指向的인 것으로 脚色하고 있다는 것이다.

主体思想과 共產主導라는 金日成의 政治 概念化는 우리의 心理戰에서 매우 重要한 心理戰的인 投影을 던져 주고 있다고 分析된다.

6.25 南侵後 國際的 孤立과 國內的 反共體制와 民族的 良心의 壁에 부딪친 金日成의 立場으로서는 民族的 次元에서 또는 國際環境이라는 次元에서 孤立的 位置나 또는 排除된 位置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6.25 動亂體制가 褪色해 감으로써 金日成은 6.25의 民族的 「이미지」를 修正하려는데 그 「主体」 및 「唯一」思想의 目的이 心理戰的인 側面에서 重要하다고 評價된다.

그런데 北傀는 主体와 唯一思想을 내세워 6.25 動亂體制의 「이미지」를 새롭게 하면서 韓半島統一의 主導權 掌握을 目標로 心理戰을 展開하여 왔는데 우리는 이 期間에 이에 대한 對抗心理戰을 積極 퍼지 않고 이를 默殺하여 왔으며 오히려 「先建設」이라는 점에서 經濟復興만 宣傳하여온데 心理戰政策에 다소 蹉跌을 招來하

여 왔다고 볼 수 있다.

(3) 金日成의 「抗日 빨치산 鬭爭」과 「民族主義 主導權 問題」

60年代 北傀의 對南心理戰의 特徵으로는 소위 金日成의 抗日 「빨치산」鬭爭과 金日成의 民族主義 性格을 모든 手段을 다 動員 宣傳하여 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心理戰의 目標은 그 政治的 起因과 原因을 다음과 같이 評價할 수 있다. 統一은 民族問題라는데 次元을 두고 南韓內에서 韓半島의 民族的 次元에서 民族主義 理念의 象徴的 人物들이 줄어들어 감에 따라 이에 대한 空白을 金日成으로 代替시키자는 데 있는 것 같다.

이것은 事實上 越盟 胡志明의 民族主義的 強點을 스스로 認識하고 胡志明의 民族主義的 接近方式을 새로이 인식하면서 6.25 兩侵時 民族을 敵으로 規定하였던 體制를 벗어나기 위한 安간힘으로 判斷된다. 또한 大韓民國에서 새로이 進出되는 民族指導勢力에 대한 攻擧를 위한 重要한 心理戰 目標이기도 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民族主義的 傳統性을 強調함으로써 6.25 動亂體制의 北의 不利益을 清算하고 동시에 새로운 統一政策의 環境을 回復하려는데 心理戰的인 要因이라 할 수 있다.

(4) 統一戰線 形成

統一戰線이란 心理戰 目標과 心理戰 對象의 結付를 活用하는 北傀 心理戰 方式의 一種이다.

다시 말하면 心理戰 對象이 南韓內의 反共階層에 屬하고 있더라도

革命을 위해서는 鬪争課業의 一部分에 共同的 利害關係가 있는 階層에 共同戰線을 필수 있는 政治勢力으로 利用하려는데 그 目的이 있다. 특히 對話時期에 있어서 統一戰線形成으로 同調勢力을 擴大해 나가는 和解心理戰을 펴가고 있다는 것은 重要的 點이라 할 수 있다.

에 컨대 民族主義 勢力이나 保守主義 勢力이라 할지라도 反美戰線에 協力할 수 있다고 보고 容共的인 勢力이 아닌 青年 學生이나 知識人들도 反政府, 反體制勢力化로 利用價值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統一戰線 心理戰은 主要攻取對象에 反對할 수 있는 모든 社會階層을 革命動力化하려는데 그 目標을 두고 있는 것이며,

金日成은 66年 10月5日 黨代表者 會議에서 「革命의 勝利를 위해서는(中略) 革命에 利害關係를 갖는 모든 力量을 動員해야 한다. 爭取할 수 있는 모든 力量을 爭取하여 하나의 政治的 勢力으로 묶어세워야 反革命을 徹底히 孤立시키고 그에 대한 革命力量의 圧倒的 優勢를 保障할 수 있으며 革命을 勝利로 이끌 수 있다」고 하였다. 이것은 統一戰線 形成의 對象을 廣範하게 設定하고 있다는 根拠가 된다.

##### (5) 平和攻勢

金日成의 「平和統一」主張은 平和攻勢에 지나지 않고 統一을 目標로 하는 것이 아니고 心理戰의 一環에 不過하다. 解放이 후 繼續되고 있는 平和統一論은 協商的 理論이 아니고 한갓 宣傳

에 不過하며 次元높은 心理戰에 두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注目해야 할 點은 北傀가 對南 對外 心理戰의 手段으로 平和攻勢를 主張하고 있더라도 理論的 構成面에서 最大의 宣傳效果를 노리고 있어 對外的으로 妥當할만큼 錯誤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心理戰 過程에서 그들은 두개의 「심볼」을 造作해 내고 있다는 것이다. 즉 『平和的 「심볼」』로 「軍縮問題」, 「外軍撤収」, 「軍事同盟 廢止」, 「平和協定締結」등이며 『平和統一의 「심볼」』인 「自由」, 「民主主義的」, 「自由選舉」, 「祖國統一」, 「聯邦制」, 「相互交流」, 「政治協商」, 「合作交流」등을 계속 美化하고 있다. 이것은 論理的 構成이나 心理戰的 「심볼」로 使用하고 있는 概念構成에 있어서 「平和攻勢」라는 心理戰的 技術성을 잘 보여 주고 있다고 判斷된다.

여하튼 그들의 對南戰略에서 戰術上으로 地下黨 工作과 아울러 心理戰 工作에서 그들의 重要한 心理戰 主題를 우리는 分明히 判斷하고 이에 根拠하여 心理戰 目標등이 多樣하게 案出되어야 할 것이다.

## 라. 對話戰略

### (1) 7.4 聲明 前後의 特徵的 考察

#### ① 對決의 樣相

7.4 南北共同聲明은 南北對話를 本格化하는데 하나의 共

同協約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7.4共同聲明 이전과 이후의 兩北韓은 對決의 論理에서 對話의 論理라는 새로운 對決樣相이 現實的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 內容을 具體的으로 살펴보면

첫째 思想面에서는 理念的 對決이었던 것이 現實的인 對決의 樣相으로 바뀌었고

둘째 軍事面에서는 戰爭 1步前的 緊迫한 狀態에서 潛在的이며 流動的인 樣相으로 바뀌었고

셋째 政治面에서는 陰性的 對決에서 陽性化되었으며 現實的인 「태블」에서 나타나고 있다.

넷째 社會文化面에서는 斷絶에서 오는 抽象的 對決에서 部分的 開放에서 온 具體的 對決로 나타났으며

다섯째 外交面에서는 「블록」間的 部分的 對決이었으나 「블록」을 넘어선 全面的 對決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것은 다시 말해 部分的 對決에서 體制間的 對決로 轉換되었고, 그 優劣이 公正한 立場에서 評價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것은 政治職化된 것이고 또 總力職化 했다고 特徵的으로 分析할 수 있다.

## ② 對話의 基本戰略

對話의 基本戰略으로서 는 그들의 人民民主主義 革命(共產化 革命)戰略을 實踐하기 위해서는 韓國의 安保 3大強點 즉, 駐韓 UN軍, 60萬 國軍, 反共을 主軸으로 한 安保體制를 集中的으로 弱화시킴으로써 그들의 統一手段(武力戰爭 또는 平和的 革命方法)을 有利하게 形成할 수 있다고 보고 이러한 對話戰略을 7.4共同

聲明에서 實際로 通用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自主의 原則을 外勢排除 즉 UN軍의 撤収에 目標을 두고 平和의 原則을 軍縮, 平和協定을 내세워 우리의 國防力을 最大로 弱화시키며, 民族團結을 合作戰術을 들고 나와 反共精神을 解弛시키자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對話自体마저도 人民民主主義 革命戰略을 위한 方便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 마. 北傀의 誤算

北傀는 對話過程에서 이러한 戰略上의 差缺을 그들 스스로 알게 되었다. 그러면 그들의 對話戰略上의 誤算은 어디에 있었는가 이에 대해서 보다 具體的으로 보자.

우선 南北對話는 總 60余回나 열렸으나 軍事問題 合意를 強奪적으로 要求를 계속할 뿐 宣伝場으로 一貫하여 왔을 뿐 實質的 會議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提議에 있어서도 그들은 60年 以後 1백 30余회에 提議를 걸어 왔으나 우리의 合理的인 15個項 交流提議에 대하여 拒否할 뿐이었다. 問題는 우리의 15個 交流提議가 北傀가 主張한 것과 一致되는 點에 대해서도 막상 우리의 交流 提議에 대해서는 拒否하고 나선 것이다.

UN 同時加入에 있어서도 그들은 2회에 걸쳐서 「유엔」加入을 申請한 바 있었으나 우리의 6.23宣言에 의한 同時加入은 反對하고

나섰다. 平和問題에 있어서도 그들은 平和協定締結을 主張하면서 우리가 提議한 相互不可侵約定에 대해서는 拒否하고 나선 것이다.

이처럼 北傀는 날날이 虛偽的이라는 것이 白日下에 들어났고 또 앞서 말한 宣傳的 次元이지 本質問題 解決과는 何等 關聯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 北傀가 對話戰略에서 犯한 誤算이 무엇인가를 더욱 明白해 질 수 있다. 그들은 表面的 理由로 對話 相對者의 交替와 6.23 宣言의 取消, 反共法, 國家保安法 廢止要求 그리고 服役中인 政治思想犯(間諜)의 釈放을 要求하고 나섰으나 이것은 그들의 對話中斷의 口實을 만들려는 것이고 결코 現實的으로 容認될 수 없는 것들 뿐이다.

그러면 그들의 實質的 中斷 理由는 무엇인가.

첫째 韓國의 實情을 誤判하였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當初 對話를 통해서 韓國의 安保体制 瓦解를 企圖하였으나 이의 不可能과 統一戰線을 形成 試圖하고 同調勢力을 糾合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容納하지 안했으며

둘째 韓國과의 모든 競争에서 自信心을 喪失한 것이다. 그들은 韓國을 往來하면서 그들의 社會發展이 落後된 것을 實感하게 되었고 우리의 代表가 北傀에 往來함으로써 北傀의 閉鎖社會가 崩壞될 것을 憂慮한 것이다.

셋째 對外活動이나 宣傳에서 劣勢를 모면하자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6.23宣言으로 우리의 國際的 支持가 擴大됨에 이에 따른

制動으로 判斷된다. 이처럼 우리의 主導下에 南北對話는 이루어졌다. 그러나 当初 그들의 誤判으로 對話에 끌려들어 올 수 있었으나 이러한 不利한 与件으로 그들은 對話中斷에 이르게 한 소위 金英柱의 궁색한 8.28 宣稱을 내놓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 바. 北傀의 對南戰略 現況

國際的으로는 強大國의 平和共存이 계속 持續될 것이며 現狀 固定化와 아울러 緊張緩和政策이 持續될 것이다.

그러나 地域的 特殊性으로 봐서는 局地的 紛爭은 惹起될 可能性과 強大國의 平和共存政策이 뒤 흔들리지 않는 範圍內에서 局地的 熱戰化라는 不安要素는 除去될 수 없다고 본다. 이렇게 볼 때 中東. 印支 이후의 韓半島 情勢가 결코 평온을 維持할 수 있다는 保障은 없는 것이다.

北傀의 對南 赤化戰略은 變함이 없고 最近 그들의 軍事的 動向은 우리의 安保的 側面에서 결코 看過할 수 없는 事實들이 發見된다.

73年 7月 祖國解放鬪爭議會에서 한익수는 「侵略戰爭에는 革命戰爭으로 對答」한다고 하여 對南全面武力戰의 試圖를 事前에 假想한 것이며, 73年 10月 人民軍指揮官會議에서 吳振宇는 「北傀主張 拒否면 놈들을 영영 쓸어버리고 統一하겠다」고 強調하여 그들의 偽裝 平和統一을 合理化시킨 反面에 언제든지 武力行事を 할 수 있다는 準備가 갖추어져 있음을 表明한 反面에 戰意의 鼓吹에 重点을 두



었고, 金日成의 소위 「五大綱領을 軍事的으로 担保」한다고 74年 2月8日 이용우가 主張한 바 있다. 이것은 그들의 武力統一을 拋棄하지 않고 있음을 明白히 해 주고 있다.

또한 金日成은 73年度 新年辭에서 4大軍事路線을 계속 推進強化하며 74年 新年辭에서도 戰鬪力 強化를 力說하였다. 이와 같이 北傀는 對南赤化 一辺倒의 強硬 軍事路線으로 一貫하고 있다.

休戰線을 위한 軍事的 動向에 있어서는 最近 西海岸 事態에 關聯 西海 5個島嶼에 대한 軍事的 壓力과 休戰線一帶의 軍事再配置는 攻擊指向性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平元線 以北에 配置된 戰略空軍이나 裝備가 休戰線에 가까운 戰術基地로 移動되었다는 事實도 그들의 戰爭準備가 얼마큼 組織的으로 進行되고 있는 가를 알 수 있다.

南北對話에 있어서는 北傀의 8.28宣言으로 原点으로 돌아가 予備會談 形態로 運營되고 있는 實情이다. 그러면 實効없는 이 會談을 北傀가 그래도 開催하자고 나오고 있는 點은 결코 그들이 平和政策을 拋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對外的으로 歪曲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狀況으로 볼 때 앞으로 北傀의 對南戰略은 「軍事的 担保」를 基礎로 하여 對南心理戰工作을 強化할 것으로 判斷된다.

8.28宣言이후 北傀는 政府 誹謗을 強化하여 對政府 不信造成과 反體制運動을 煽動하고 있으며 統一戰線의 形成과 學生「데모」煽動에 狂奔하고 있다. 이러한 宣傳 煽動은 強化될 것이며, 이미

構築된 地下勢力을 擴大할 目的으로 地下黨 工作도 아울러 強化할 것으로 判斷된다.

最近에 나타난 울릉도 間諜團事件과 學園內의 「民育學聯」事件 등이 具體적으로 말해 주고 있다.

이러한 戰略과 아울러 그들은 南韓內에 武裝共匪를 大量兩派시키거나 部分的으로 浸透시켜 社會의 混亂과 部分的 地域을 攪亂시켜 마치 韓國內의 內亂事態로 宣傳하여 60年代 以後의 戰術을 再版시킬 可能性도 否認할 수 없는 點에 注目해야 한다.

## 5. 北傀의 最近動向

### 가. 軍事的 動向

北傀는 最近 西海岸 事態를 비롯해서 首都圈에 軍事的 壓力을 가하고 있다. 休戰線一帶 從來의 戰術基地化에서 戰略基地化하기 위하여 攻堅能力을 集中的으로 配置하여 速戰速決의 戰術的 目標를 容易하게 達成하려고 하고 있으며, 西海岸의 最大脆弱點을 「카바」하기 위하여 西海岸 6個 島嶼에 대한 領有權을 主張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一連의 軍事的 動向과 아울러 그들의 對南赤化를 위한 革命戰略과 더 길이는 소위 南韓「解放戰爭」까지도 不辭하고 있음을 여실히 알 수 있다.

즉, 勞動黨政治委員인 韓益洙는 73年7月 祖國解放 鬪爭記念辭에서 「侵略戰爭」에는 「革命戰爭으로 對答」한다고 力說하였고 73年10月 소위 「軍指揮官 會議」에서 人民軍總參謀長 吳振宇는 南北關係에 있어서 「北韓의 主張을 拒否하면 놈들(韓國)을 영영 쓰러버리고 統一」하겠다고 強硬한 態度를 表明하였다. 이것은 南韓을 武力으로 統一하겠다는 目標를 分明히 한것이다.

또한 73年10月「軍指揮官會議」에서 吳振宇는 「動員態勢完備」와 「戰鬪力 強化」를 力說하였고 韓益洙 역시 金日成 敎示를 引用 動員態勢를 完備하였다고 主張하였다. 그리고 金日成은 73年 7.4年 新年辭에서 各各 4大軍事路線과 戰鬪力 強化를 내세워 戰鬪態勢를 完備할 것을 強調하였다.

이들은 이와같은 基本構想을 實踐하고 있는 內容을 보면 正規軍 28個 師團 이외에 142萬 勞農赤衛의 戰力化와 붉은 青年近衛隊 70萬名等 重武裝兵力이 事實상 68個師團으로 推定되고 小銃師團이 110個로 判斷된다. 이 基本戰力에 基盤을 두면서 한편으로는 地上軍에 있어서는 軍事敎導隊 23個師團規模로 戰力化하고, 第8特殊軍團 揮下에 特殊 輕步兵旅團을 創設하였다.

裝備面에 있어서도 戰車도 737台에서 1,102台로 늘었고 各種砲도 7,000門에서 8,500門으로 늘었다.

海軍에 있어서도 東西艦隊 司令部를 新設하였고 艦船도 增強하여 再配置함은 물론 海岸 攻擊用 및 上陸用 艦艇도 急速造하여 상당한 戰力을 계속 갖추어 나가고 있다고 判斷된다.

空軍에 있어서도 從來의 機種을 바꾸어 나가고 있는데 M-G15. 16에서 19.21로 配置하고 있고 對共防衛에서도 高射砲 中心에서 SA-2로 代替하였고 高射砲는 勞農赤衛隊에 配置하고 있는 實情이다. 裝備에 있어서도 M-G19가 80余台로 判斷되고 SA-2도 300余基地를 保有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航空機는 600余台, 輸送機 300台로 900余台나 保有하고 있는 것으로 判斷된다. 앞에서도 言及한 바와 같이 平原線以北의 戰略空軍基地와 休戰線一帶의 戰術基地를 移動되었다는 것은 注目을 要하지 않을 수 없다.

#### 나. 對南動向

對南動向에 대해서는 主로 南北對話와 關聯하여 볼 때 對話에

있어서 基本戰略을 韓國의 3大 安保 強點을 弱化시키는데 두고 있다. 즉, 韓國의 維新體制의 瓦解 60萬 國軍의 戰力의 弱化 駐韓UN軍의 撤収등을 根幹으로 하는 安保態勢의 弱化는 그들의 對南革命을 有利하게 誘導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3大 安保強點이 弱化될 때 人民革命을 實踐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觀點에서 7.4 共同聲明의 3大原則마저도 그들의 戰略的 要素로 濫用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自主의 原則」을 UN軍을 標的한 外勢排除에 두고,

「平和의 原則」을 國防力과 安保態勢에 標的을 두고 軍府攪亂과 소위 「平和協定」締結에 두고...

「民族團結의 原則」을 反共精神 解弛에 標的을 삼아 「統一戰線」 등 合作戰術을 펴가는데 있다.

그러면 南北對話에서 그들은 얼마나 虛構的이었고 偽裝的이었는데 대하여 간단히 言及해 보자.

南北對話가 60余回以上 進行되는 동안 北韓은 政治的 軍事的 諸分野에 대하여 一括打決만을 내세웠지, 可能的한 分野부터 漸進的으로 어려운 問題를 解決하려고 들지 않고 있다. 北僞는 여리가지 총 130余回의 提議가 있었으나 우리의 15個項 交流提議에 대해서는 무조건 拒否하는 態度로 一貫하고 있다. 6.23宣言 이후 유엔同時加入을 提議하였으나 北僞는 유엔加入을 두차례에 걸쳐 申請한 일이 있음에도 우리의 提議에 대하여 外面하고 말았다. 그들은 또 平和協定締結을 主張하면서도 우리가 提議한 相互不可侵協定

은 拒否 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그들의 戰略戰術上의 核心이 우리에게 의해서 잘 推進되고 있지 못한 데서 즉, 그들의 強奪的 要求가 우리에게 의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대한 對話戰略上의 變化는 南北對話를 拒否하기까지에 이른 것이다. 그러면 그들의 對話中斷의 理由는 무엇인가.

表面的 理由로는 우선 對話相對者의 交替를 要求로 나섰고 6.23 宣言의 取消要求, 反共法, 國家保安法廢止, 服役間諜 釈放을 要求하여 對外的 名分을 찾아 불려고 하고 있으나 이것은 한갓 宣傳的 口實에 不過하다.

보다 實質的 理由로는 그들이 韓國實情을 誤判한 것이다. 즉, 韓國의 安保體制를 瓦解하고 弱화시킬려고 하였으나 이러한 企圖가 失敗하고 말았다. 이와 아울러 南韓內의 同調勢力을 糾合하여 統一戰線을 形成하고자 하였으나 이것마저 失敗하였다.

둘째로 競爭에서 自信感을 喪失하였다. 北傀代表들이 韓國에 往來하면서 그들의 劣等意識은 크게 늘어났다. 즉, 北韓社會發展이 현저한 落後를 実感하게 된 것이다. 또한 交流가 擴散될 경우 北韓의 閉鎖體制가 瓦解될 정도로 變質될 可能性이 짙다는 것이다.

셋째로 6.23 宣言으로 우리의 國際的 支持가 共產國까지 擴大되고 對外宣傳이 強化되므로써 이에 대한 劣勢의 突破口를 찾아보자는 것이다.

이처럼 그들의 對南動向도 結局 戰略的 次元에서 戰術上의 變更만 가져온 것이다. 바로 이것은 共產主義 革命戰略에 立脚한 「힘

의 哲學」을 信俸하고 있는 그들로서는 武力에 의한 南北赤化만이 最上의 方法으로 選擇하고 있다. 對話는 곧 「手戰略」처럼 「談談打打」「打打談談」의 戰術을 實際적으로 適用해 본 것이다. 이러한 것이 뜻대로 되지 않자 結局 그들은 韓半島에서 緊張을 造成하여 國際的 耳目을 集中시키고 그 變質을 韓國側에 轉嫁시켜 結局은 韓國의 國際的 孤立化를 試圖하려는데 그들의 向背가 追跡된다.

#### 다. 北傀의 向背

北傀의 韓半島에서 對話 代身이 緊張을 選擇한 것은 여러가지 點에서 分析될 수 있다. 그러나 最近 그들의 權力構造의 變化는 内部体制에 대한 어떤 變化가 엿보이고; 또 變할 수 있는 조짐이 있다. 우선 戰略的인 面에서 본다면 그들은 當분간 閉鎖体制의 固守로 内部 瓦解의 要素를 除去하는데 對內的 目標을 두고 思想革命과 政治思想教育의 強化策을 集中的으로 벌려 소위 革命基地를 더욱 鞏固히 할 것이 予想된다. 「自由」에 對한 挑戰은 北傀의 當面試鍊의 가장 큰 苦惱이 아닐 수 없다.

對南에 있어서는 소위 「向日不定作戰」의 人民革命戰略을 實現하기 위하여 維新体制의 瓦解에 總力을 傾注할 것이다.

對外的으로는 韓國의 國際的 進出을 극력 妨害할 것이며, 특히 對共產圈에 대한 接近을 모든 手段과 方法을 다할 것이다.

北傀의 이러한 對內外的인 戰略의 展開는 74년에는 더욱 加熱

化할 것이고 南北間의 對決은 더욱 熾烈해 질 것이 予想된다.

그러나 우리는 國內外的 狀況을 우리에게 最大限으로 有利하게 誘導하기 위해서 北傀의 對内外戰略을 源泉적으로 封鎖할 뿐만 아니라 積極적으로 粉碎하는데 總力을 傾注해야 할 것이다.



## 6. 우리의 對備策

우리는 北傀의 少年團員이 「恆常 準備하자」「恆常 準備하자」는 意味가 어디에 있는가를 分明히 알아야 한다.

北傀의 總力的 目標가 이 口號에 담어져 있으며 이는 對南革命 (大事變)을 主導的으로 맞이하기 위한 動員體制를 갖추자는데 있다. 이것은 또 對話가 계속되는 한 對話를 통해서 그리고 武力的 方法에 의해서 그들은 選擇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使命은 韓半島를 民主主義下에 統一할 수 있는 主導的 力量이 確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平和的 統一의 担保는 이 땅에 平和 定着이 突現되는 條件下에서 만 可能하다. 韓半島에 平和 定着의 担保는 또한 우리의 굳건한 安保態勢이며 國民 各者가 가지는 투철한 安保價値觀에 달려 있다.

우리는 金日成의 對南赤化의 誤判을 最大限으로 防止하고 그위에 韓半島에서 平和定着을 突現하여 平和統一의 早期突現에 우리의 意志로 結束하고 信念을 바로 세워야 한다.

우선 對內的으로는 維新體制를 더욱 強化하고 國民의 精神面에 있어서 勝共民主理念을 確固히 하여야 하겠다. 北韓의 앞으로 계속 對話에 應하지 않을 수 없고 또 그 範圍가 좀더라도 對話는 中斷할 수 없는 것으로 判斷된다.

그렇다면 北傀가 앞으로 어떤 戰術을 壓使할지 모르지만 비록 終局에 가서 武力赤化를 企圖하더라도 中間段階에 있어서는 平和統

一을 표방하게 될 것이 사실임을 알 때 우리는 그들이 内部 瓦解를 試圖하는 社会的 攪亂을 통하여 反体制的 鬭爭을 煽動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이에 대하여 徹底하게 對廝해 나갈 것이 무엇보다도 要請되는 바이다.

對内關係에 있어서는 特히 北傀의 戰略的 觀點을 正確하게 分析하여 適時 對廸弘報를 強化하여 그들의 戰略的 目標을 效果的으로 粉碎해야 한다. 北傀가 大韓民國에 대한 敵對心理戰을 強化하고 있는 한 우리는 이에 對廸하는 積極적 對北心理戰을 展開해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北韓을 自由化로 誘導하는 具體的 方案도 모색하여 우리와 같은 民族的 正統性에 立脚한 同質性 회복을 誘導해 나가야 한다.

對外的으로는 우리의 自信있는 對外活動을 통하여 北傀의 戰爭 陰謀를 暴露하고, 그들이 國際舞臺에서 韓國을 악랄하게 非難하고 있는데 對하여 說得力있게 우리의 立場을 밝혀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對決있는 對話時代가 보다 廣範하게 具體적으로 展開되고 있다.

이것은 北傀의 挑戰으로 始作되었기 때문에 이런 挑戰要素를 克服하는 것이 現實적으로 要請되고 있는 當面課題이다.

現代戰은 總力戰이다. 總力戰은 政治戰 經濟戰 外交戰으로 나타나고 心理戰이라는 高次元的 方法으로 料理되고 있다. 이러한 總力戰下에서 무엇보다도 對内体制의 強化와 아울러 總力安保態勢가 重要하다는 理由가 分明해진다. 北傀의 對南軍事的 壓力을 우리는 보다 優越한 立場에서 이들을 制壓해야 할 것이다. 統一의 그날까지 이런것은 우리들의 表現的인 目標가 될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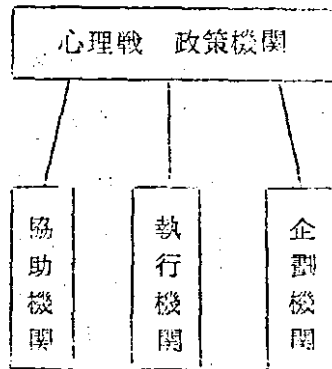
## 7. 政 策 建 議

### 가. 心理戰의 運用과 機構

心理戰의 運用에는 몇가지의 능숙하고 機動性 있으며 政策的 機構가 優先 組織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心理戰 運用과 關聯한 몇가지 構想的인 機構와 心理戰의 基本的인 運用을 兼하여 論하여 본다.

#### (1) 基本的 運用과 機構

心理戰 運用의 基本에는 첫째 「心理戰 政策機關」 「企劃機關」 「執行機關」 「協助機關」이 必要하다.



最小限 上記한 機構는 形式上 基本的인 機構에 屬한다고 볼 수 있다.

첫째 「心理戰 政策機關」은 統一心理戰은 最高의 政策的 基本이 確定되고 이 基本原則이 決定되면 이 原則에 따라서 心理戰 目標

가 長期的 面에서나 短期的 面에서 具體化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心理戰 政策機關」은 心理戰 目標의 基本原則을 政府立場이나 民間의 여론 또는 지혜를 結集시켜 心理戰 目標에 活用할 수 있는 機構로서 基本的 機關이라고 볼 수 있다.

두째 「企劃機關」은 「心理戰 政策機關」에서 決定된 綜合的 心理戰 目標 및 政策에 따라서 具體的인 또 技術的인 政策實踐을 爲한 企劃을 담당 心理戰 「프로그램」 또는 計劃을 짜는 것을 任務로 한다.

세째 「執行機關」은 「企劃機關」 또는 「企劃班」에서 넘어온 心理戰 計劃과 政策을 實踐한다.

이 「執行機關」은 항상 機動性있게 움직일 수 있는 機關이어야 하며 항상 「매스. 미디어」나 其他 心理戰 手段을 장악하거나 心理戰 手段인 「協助機關」과 緊密한 連絡下에 있어야 한다.

넷째 「協助機關」이다. 統一院 自体가 心理戰의 手段인 大衆動員 機關「反共聯盟. 文教部等」이 없으며 「라디오」 「테레비」等 「매스 미디어」라는 手段이 文公部처럼 自体가 所有하고 있지 않음으로 해서 이러한 心理戰 活動에 必要한 많은 「協助機關」과 긴밀한 關係를 維持하지 못하면 統一心理戰은 不可能하다.

## (2) 「心理戰 担当官室」의 新設

事實上 앞으로 南北對決에서 政治戰은 大部分 「統一心理戰」이 담당해야 할 계재라면 統一院에 必히 「統一心理戰 担当官室」의 새로운 設置는 매우 重要하다고 본다.

心理戰 担当은 때로 秘密을 要하며 때로는 高度의 政策的 問題를 다루게도 되며 때로는 高度의 技術的인 問題도 다루게 되므로 「心理戰」의 重要性에 비추어 「心理戰 担当官室」의 新設이 冀望되며 어떤 意味에서 時急하다고도 볼 수 있다.

또한 「心理戰」은 文字 그대로 「心理的 戰爭」임으로 心理戰의 중추가 될 協心機關없이 不可能하다. 心理戰에는 一貫性이 있어야 함으로 「心理戰 政策機關」, 「企劃機關」, 「執行機關」, 「協的機關」을 統割할 集中的인 中心機關이 必要하다고 본다.

앞으로 本格的인 南北關係가 擴大 展開되면 될수록 統一院의 「心理戰 担当官室」의 役割은 커간것이라고 思慮된다.

「心理戰 担当官室」에 前述한 「企劃班」과 「執行機關」을 두고 「協助機關」과의 連絡을 하면 된다.

勿論 「心理戰」에서 重要的 「心理戰 評價」도 여기에서 担当 職任이라고 본다.

또한 「心理戰 担当官室」은 北韓集團의 統一心理戰의 目標과 方法에 關한 情報를 수집 평가하는 特殊한 研究班도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心理戰 担当官室」은 다음에 論할 「心理戰 政策委員會」와 「心理戰 運用委員會」에 對한 運用도 장악하여야 하리라 본다.

### (3) 「心理戰 政策委員會」

「心理戰 政策委員會」는 特히 心理戰 目標設定과 이에 準하

는 政策的 次元의 機關으로서 「心理戰」 目標設定에 必要한 社會의 專門的인면서 권위적인 人物을 構成할 수 있다.

여기에서 基本的인 「心理戰」 目標에 대한 諮問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여기에 動員될 人事에는 心理学 社会学 政治学 歷史 人類學에 대한 專門知識을 터득한 者면 더욱 좋다고 볼 수 있다.

또는 社會職能別로 構成할 수도 있다. 即 宗教界 學界 勞動界 等等이다.

#### (4) 「心理戰 運用委員會」

「心理戰 運用委員會」는 「小委員會」와 「協議會」로 構成한다.

「心理戰 運用委員會」는 어느程度 「技術的 次元」에서의 機關으로 하여 그 機能과 任務가 주어진다.

「小委員會」는 學界 統一院 情報部人事로 構成하여 定期的으로 心理戰 計劃의 審議機關으로 한다.

「小委員會」는 核心的 機構로서 統一院 次官이 委員長이 되어 주재해도 좋다고 본다.

「協議會」는 統一院이 必要로 하는 協助機關과의 協議를 爲한 委員會를 말한다.

「協議會」의 構成은 統一院 文公部 文教部 國防部 情報部 等으로 構成할 수 있다.

그 目的은 統一心理戰 實踐過程에서의 相互協助와 心理戰 手段의 動員(KBS等)에 協助體制를 構成하는 것을 그 目的으로 한다.

# 委員會 構成表

心理戰 政策委員會

次官

各界專門家 及 元老 (政策次元)

心理戰 運用委員會

小委員會

次官 (長)

專門 (技術次元) 人事小數

協議會

統一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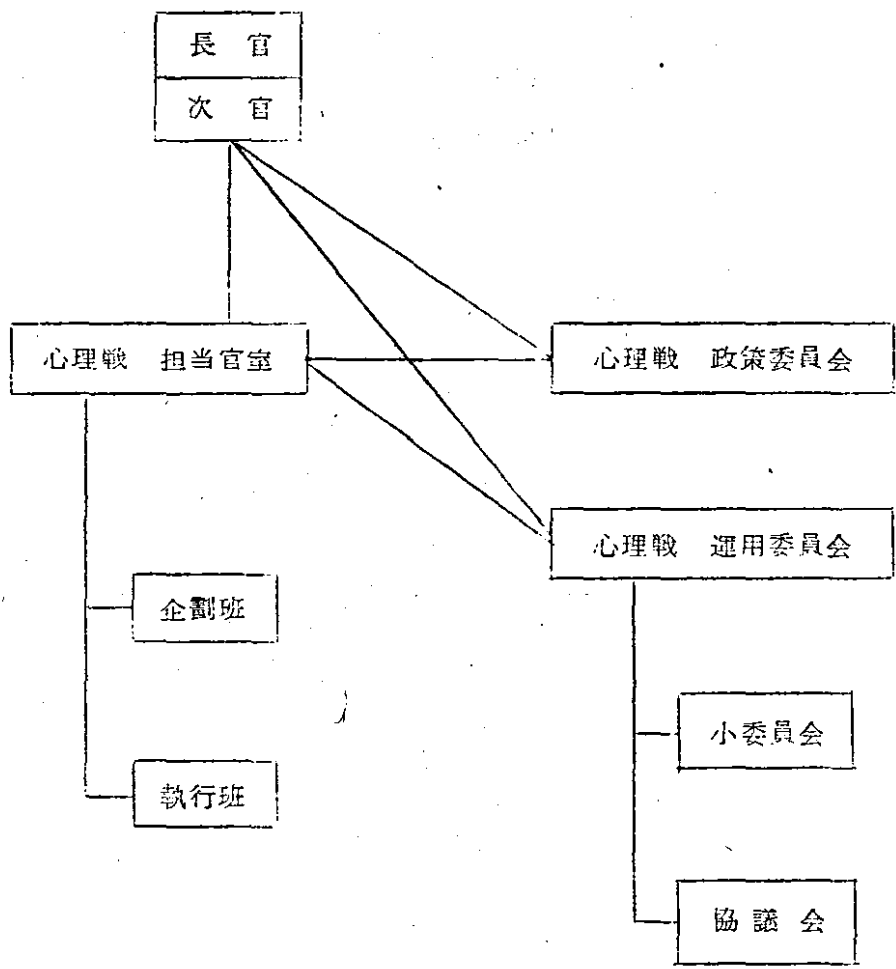
文公部

文教部

國防部

情報部代表

※ 心理戰 運用斗 機構表





특히 統一院 次官을 長으로 하는 「小委員會」에는 「미디어」에  
關한 經驗이나 專門知識과 分野에 중사한 者나 軍事心理戰 北韓에  
關한 專門知識을 가진 者等 小數의 委員이긴 하나 相當한 水準의  
專門家로서 構成해야 그 核心的 政策諮問機關이 될 수 있으며 특  
히 分野에서 從事한 者면 더욱 좋다고 본다.

#### 나. 心理戰의 具體的 事業

統一心理戰의 意味 心理戰의 目標 心理戰의 對象 心理戰의 運  
用과 機構를 보았다.

이를 基礎로 하여서 몇가지의 具體的인 心理戰 事業의 「例」를  
들면서 끝章을 맺는다.

原來 心理戰의 具體的 事業은 實務陣이 그時그時에 맞는 「方法  
과 技術」을 一定한 目的과 對象에 適用하여야 하며 事業의 「패  
턴」을 미리 定할 수 없는 內容이 많은 것이 事實이다.

특히 心理戰의 具體的 策略에 있어서는 「技術性」이 重要한 意  
味를 띠므로 實務的으로 處理해야할 問題가 많은 것이다.

또한 「方法과 技術」이라고 할때 心理戰에 動員할 수 있는 限  
界란 尠이없다. 이 역시 實務的으로 處理해야할 問題가 많은 것  
이다.

여기에서 몇가지 論하는 것은 基本的이며 統一院의 事情으로 할  
수 있는 事業의 「패턴」을 잡아본 것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基本的 「매스 미디어」를 中心하여 몇가지 事業을 보기로

構想하여 보기로 한다.

(1) 「移動세미나」組織

「移動세미나」組織은 特히 統一院이 基本的으로 전과하기를 願하는 統一問題에 関한 「테마」를 特히 「마스콤」(一般對象) 軍師團 學校等を 對象으로 「사람의 移動」이나 「思想의 移動」이란 原則下에서 適切한 時期에 適切한 問題를 提起하여 「테레비」프로에나 學校 軍師團 등에서 中心의 人事나 幹部에 公開裡에 「세미나」를 構成하여 進行한다. 勿論 「自然스러워야 한다」고 하는 點을 잊지말아야 한다.

따라서 統一院은 問題點(세미나題目)과 參加者 動員을 미리 構想하여 두고서 活用할 準備가 具體的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例로 各種 「세미나」種類를 豫備的으로 構成하여 두고서 心理戰에 對備하는 일이다.

보다 具體的인 例를 든다면 統一院은 「세미나」(A) 「세미나」(B) 「세미나」(C) 등으로 区分하여 「세미나」(A)는 心理戰 目標가 가령 「南北對話의 姿勢」를 「올바르게」 國民各階各層에 전과하기 위한 것이라면 「南北對話는 어떻게 進行되고 있는가」란 「세미나」 題目下에 「세미나」를 構想하여 討議問題點 等を 定하고 그 對象에 따라서 學界 言論界 人事를 動員하여 「세미나」를 組織한다.

또 이렇게 組織된 「세미나」 構成을 心理戰 目標와 「對象」에 따라서 「테레비」放送 「라디오」 등의 媒介體를 利用하여 「세미나」

形式의 討議過程을 通하여 基本的인 「南北對話에 對한 올바른 認識」을 自然스럽게 國民에게 注入할 수 있다.

이 「세미나」構成은 「세미나」의 基本 「틀」만 定하고서는 「人的動員」과 「具體的 題目」 등은 心理戰 目標과 對象에 따라서 그 內容을 달리할 수 있다.

같은 心理戰 目標에 따라서 그 目標은 同一하거나 같더라도 對象이 軍師團이나 學校나 一般大衆이나에 따라서 「세미나」 構成者나 그 內容의 變경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移動세미나」의 構想은 마치 戰爭에서 말하면 「유격대」의 몇가지 組織의 機能을 갖게된다고 볼 수 있다.

이 「移動세미나」의 경우는 統一院이 큰 豫算의 뒷바침이 없더라도 心理戰 媒介體(國營放送 軍師團 學校)와의 능숙하고 긴밀한 協助만 있다면 쉽게 進行시킬 수 있는 討議이라고 할 수 있다.

잘한다면 日本内の 高層社會에 까지도 이 事業을 擴大할 수도 있다고 본다.

더욱이나 新聞社나 學會等과의 協助를 얻는다면 더큰 效果가 있을 것임은 말할 필요없다.

「心理戰 担当者」은 언제나 統一問題와 關聯될 豫想心理戰 目標을 設定하고 이에 맞는 「移動세미나」計劃을 수시로 作成하여 對備하고 있어야 한다.

「세미나」 參加者 (主題發表者 패널參加者)는 加能하면 수시로 교체해야 한다.

同一한 「테마」의 「세미나」라도 人的構成은 적절히 교체하는 것이 좋겠다. 統一院은 間接的으로만 參加하며 表面에 나설 필요는 없다고 보며 心理戰에서 當然한 理致이다.

### 「計劃書」 (세미나) (A) (보기)

#### 가. 心理戰 目標

「10.17 비상계엄선포」에 따른 統一을 對備한 南北對決의 國內勢力結果過程을 國民에게 傳達強調

#### 나. 「세미나」構成

##### 1) 人的構成

○○大學教授(○○○ 또는 ○○○)

○○日報 論說委員(○○○ 또는 ○○○교체) 外三人

#### 다. 媒介體

「KBS, TV」의 「오늘의 맥박」活用 「세미나」形式取함.

#### 라. 「세미나」題目

「南北對話와 民族障營」 또는 「南北對決에서 民族이 優先이나 民主主義가 優先하는가?」

## 마. 心理戰 對象

一般大衆 ( 特히 都市知識層 )

### (1) 「統一放送」問題

「統一放送」問題는 別途研究計劃이므로 本論에서 省略함. 그러나 現在 KBS의 「第三放送局」을 充分히 活用하여 優先 進行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心理戰」이란 角度에서 「統一放送」에서 「무엇을」 放送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간단히 論할 필요가 있다.

本論에서 提議하고자 하는 「프로」의 內容은 다음과 같다.

#### 가) 「統一講座」 ( 戰略放送 )

주로 政府의 統一政策과 이에 關聯한 問題點을 說明 討論함.

#### 나) 「解放以後」의 「韓半島 政治史」 ( 戰略放送 )

첫째 1945年에서 動亂발발時까지 둘째 「動亂史」등을 재미있게 說明한다. 特히 1945年에서 1950年까지의 左右合作과 民族融營의 形式등을 強調한다.

#### 다) 「統一問題時事」 ( 戰術放送 )

「統一問題」와 關聯한 「뉴스」 「時事解説」등을 內容으로 한다.

以上과 같은 基本 「프로」가 必要하다고 본다.

### (3) 「매스콤」活用

#### 가) 新聞의 活用

統一院은 新聞紙面을 活用해야 한다. 新聞活用에는 두 가지 方法이 있다. 그 하나는 紙面中 廣告난을 매입 心理戰 內容을 담는 경우와 두째는 本紙面을 사는 경우다.

現在 統一院의 研究費나 資料가 신문사로 나가고 있음으로 統一問題와 關聯된 紙面活用은 比較的 쉽다고 본다.

紙面의 活用에서는 可能的 讀者가 많이보는 「特集」을 構成해야 한다.

前項에서 말한 「세미나」共同主權도 큰 效果가 있다고 본다.

#### 나) 「테레비」活用

現在 各 「테레비」放送에서 「프로그램」中 特히 「時事프로」나 「統一問題」프로는 放送局이 크게 애로를 겪고 있는 「프로」임으로 統一院이 「팻키지」프로를 準備하여 放送局側과 協議한다면 크게 活用할 수 있는 問題다.

가령 「統一座談會」란 定期프로를 들 수 있다. 1個月의 한 번씩이라고 할 수 있다. 「統一座談會」를 通하여 올바른 統一觀을 注入시킬 수 있다.

勿論 「統一座談會」의 「프로」內容은 全的으로 統一院이 人的 物的 動員의 責任을 져야한다.

#### 다) 「라디오」

前項에 準한 事業이면 可하다고 생각된다.

#### 라) 「영화」

統一院은 統一問題와 關聯한 啓蒙映画(短編映画)를 만

이에 資料만 投入하면 되는 것이다. 優先 統一院 心理戰 政策 法을 갖고 있다.

國軍에는 放送 마이크 政訓體系等 莫大한 心理戰 體系와 手變方 될 뿐이다.

장악하고 있음으로 이 媒介體系를 活用하여 心理戰 目標만 달리하면 國防部에는 國防部대로의 心理戰 手段을 갖고 있으며 媒介體系를 고, 본다. 多樣한 心理戰 「프로젝트」를 構成할 수 있다고 본다. 이들이 갖고있는 心理戰 媒介體系를 調查하여 積極活用할 수 있다 리 情報部 文公部 文教部 國防部 等이다.

政府 자체가 많은 心理戰 媒介體系를 장악하고 있다. 中 特 (4) 政府媒介體系 活用

있다. 統一問題를 한두에 그 歷史 現實 미래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문화영화 一篇이라도 만들 것을 적극 권고한다. 이 一篇은 얼마든지 複寫할 수 있음으로 海外교포用으로도 쉽게 活用될 수 다.

여 그 說明(토키)에서 統一院 政策을 自然스런 形에 紹介할 수 있 「네르린」과 38線의 比較等을 生생하게 演이 기록된 영화로 하 即 統一問題와 南北間의 分斷의 起源 動亂 解消의 可能性 西獨 解放以後의 實際的 (도큐멘타리)映面면 더욱 大衆에게 示評한다. 「단편영화」는 心理戰 對象에 따라서 製作되어야 한다. 特히 들 수 있다. 이를 일반극장이나 TV프로에 상영도록 한다.

에서 各政府機關의 活用可能한 心理戰 媒介體를 一切 「調査」할 일이라고 본다.

情報部와는 對北心理戰의 協助를 얻을 수 있으며 文公部와는 一般國民을 爲한 心理戰에 결합할 수 없는 放送「미디어」를 活用할 수 있으며 文教部와는 學生層에 對한 心理戰 手段의 協助를 받을 수 있다.

國防部에서는 全軍에 對한 統一教育 및 心理戰 協助를 받을 수 있다.

政府機關의 「媒介體調査 및 活用方案」은 別途로 調査事業이 進行되어야 할 것이며 調査가 끝나면 心理戰 目標設定과 對象에 따라서 그 活用方案이 수립되어야 하리라 본다.

#### (5) 各種社會團體의 活用

앞으로 統一勢力化의 重要한 機能을 하게 될 各種 社會團體의 心理戰的 活用方案은 매우 重要하다고 본다.

各種 團體란 「기독교」 團體에서 大學 「씨클」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團體를 말한다.

특히 「理念團體」 例하여 「기독교」 「불교」 「統一促進會」 또는 大學의 「統一硏究會」 等이다.

統一院은 이러한 各種 團體에

첫째 「資料」供給

둘째 강연 회시 「講師」供給의 두가지 準備만은 철저히 支援해야 한다.



「心理戰 担当官室」에는 이에 對備한 準備가 있어야 하며 講師 (協助받을 수 있는)의 專攻 性格 파악을 爲한 「리스트」 作成과 資料分類가 되어있어야 하겠다.

따라서 各種 團體가 要求할 때에는 資料 및 講師供給이 자체없이 支援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團體와의 긴밀한 協助는 心理戰 目標나 對象把握에서 극히 重要的 点이라고 보며 더나가 社會團體의 心理戰的 活用方案이 具體적으로 別途 計劃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 (6) 統一問題資料「팩키지」 ( PACKAGE )

統一院 心理戰室에서는 가장 基本的인 資料集이 心理戰用으로서 配布를 爲한 「팩키지」資料集이 必要하다.

예를 들어 「팩키지」資料를 構成한다면 몇篇의 「팩시밀」

( Facimile ) 形式으로

- ① 韓國의 統一政策
- ② 中立化의 可能性과 不可能性 ( 共產統一不可 )
- ③ 南北接觸의 進行
- ④ 等等

으로서 이는 一般用으로서 觀光客 外國記者 一般記者 ( 韓國人 ) 에게 쉽게 韓國의 統一政策과 南北接觸의 상황을 一目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리라 본다.

可能하다면 特殊對象用 ( 高級 ) 과 一般用으로 区分한다면 더욱 좋으리라 본다. 特殊用은

大學研究機關에 資料供給

外國研究機關에 活用토록 供給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統一院  
이 現在 研究員 支給을 通하여 획득하고 있는 資料를 이에 活用  
하면 더욱 좋으리라 본다.

~ ○ ~

以上에서 몇가지 心理戰 事業의 具體적인 計劃을 보기로 보았다.  
그러나 이미 強調했듯이 心理戰 活動은 그 具體적인 心理戰 目標  
와 對象에 따라서 展開되어야 하며 결코 一定한 「패턴」이 있는  
것은 아니다.

도리어 前章에서 論한 心理戰의 運用과 機構를 早速히 組織하고  
그 運用의 實質적인 展開만이 心理戰의 成功여부를 決定짓는 일  
이라고 본다.